

음절구조를 중심으로 한 김소월 시의 언어학적 특성 연구*

조 성 문
(한양대학교)

Cho, Sungmoon. 2008. A Study of Linguistic Characteristics in Sowol Kim's Poems on the Basis of Syllable Structure.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6(1), 37-7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linguistic characteristics in Sowol Kim's poems on the basis of syllable structure. That is, I divide the syllables of poem into onset, nuclear, and coda, then observe which orthographies are used frequently. The study of Sowol Kim's works sufficiently obtains a substantial argument in view of the literary theory. However, it is insufficient for the linguistic method. Poetry is based upon the relationship of similarity among sounds. Sounds perceived as similar to one another create acceptable rhythm pairs. Because sounds are hierarchically arranged in languages, patterns in poetry can reveal the priority order within this hierarchy. So, with respect to the orthography patterns of Korean, I have analyzed all of Sowol Kim's works from 1929 to 1934 including unpublished pieces. At last I found the priority order of Sowol Kim's poems within sound hierarchy. Most common are syllables with no onset and no coda pairs. With respect to acoustic features, the most frequent syllable utilize the [+sonorant] feature. This pattern remains consistent over time.

주제어(Key Words): Sowol Kim, poem, syllable structure, orthography, the priority order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음절구조를 중심으로 김소월 시의 언어학적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¹⁾ 시어의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하여 어떤 소리가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HY-2006-G). 또한 본 논문의 세부적인 사항에 조언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1) 본 논문은 김소월 시에 대해 언어학적인 특성을 연구한 논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소월 시의 문학적 연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를 빈도를 조사하고 확인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김소월의 모든 시가 분석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김소월의 작품이 음학적 특성이 있다고만 언급해 왔지 그 근거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소월의 그러한 주장의 근거를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분석은 1920년부터 1934년까지 발표된 시뿐만 아니라 미발표된 시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김소월 시의 특성이 제시될 것이다. 이러한 철자의 빈도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문학적인 측면이 아닌 언어학적 측면에서 김소월 시의 특성 및 문체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김소월은 한국 근대시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 시인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문예동인지를 통한 서구 문학의 소개 및 서구적 사조의 전래가 붓물을 이루던 시기인 1920년대에 오히려 그는 전통적 율격과 민족 고유의 정서에 바탕을 둔 민요조 서정시를 창작하여 내용과 기법 면에서 새로운 차원을 개척한 시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김소월에 대한 문학적 연구는 이미 충분하게 이루어져 왔다. 물론 언어학적 분석도 이루어졌다. 림금산(1987), 진정구(1990), 오하근(1994), 강용택(2004), 구인모(2002) 등이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림금산(1987)과 강용택(2004)는 반복률에 대해서, 진정구(1990)은 개작과 정의 언어에 대해서, 오하근(1994)는 어구 생략에 대해서, 구인모(2002)는 율격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뿐이다. 다만 강용택(2004)는 조기천의 작품과 비교하면서 김소월 시만이 종성 ㄴ, ㄷ, ㅁ, ㅇ의 사용으로 시적 감흥을 음향적으로 살렸다고 했다. 그러나 그 비교 방법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 조기천 시는 전반적인 자음의 사용을 이야기하면서 거센소리와 된소리를 많이 사용했다고 하였지만, 김소월 시는 종성 중 ㄴ, ㄷ, ㅁ, ㅇ의 사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음 전반을 비교하든지, 아니면 종성만을 비교하든지 해야 한다. 또한 종성 ㄴ, ㄷ, ㅁ, ㅇ의 사용이 얼마나 이루어졌고 다른 종성들에 비해 어느 정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어의 음절을 구성하는 소리, 특히 철자의 빈도를 중심으로 하여 김소월 시 세계에 접근하려고 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밝혀려는 음절구조를 중심으로 한 언어학적 특성 분석은 그 효용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대해서도 제시하지 않겠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의 내용은 김소월의 모든 시로 총 271편이다. 그래서 최근에 발간된 김종욱(2005)를 근거해서 김소월의 시를 분석했다. 김종욱(2005)는 친필원고 및 최근 발굴 자료들을 보강해 김소월의 모든 작품을 담고 있어서 주 텍스트로 삼은 것이다. 특히 이 텍스트는 소월의 전 작품을 원형 그대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간혹 원전을 구하지 못한 일부 작품의 표기는 현행 표기법을 따랐다. 미발표 작품은 김억이 소월의 작품을 정리해 소개했던 것과 <문학사상>지를 통해 발굴된 작품들을 수록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그 중 몇 편은 김소월의 것으로 확신할 수 없어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²⁾ 또한 <문예중앙>에 김소월의 유고시라고 해서 소개된 50여 편은 모두 김억이 이미 발표한 시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역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자료를 시기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920년부터 1934년까지 나누었으며, 미발표한 유고 작품들도 따로 구분하였다. 또한 문학계에서 분류하고 있는 대로 1925년까지를 전기로 하고 그 이후를 후기로 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문학적 분류가 본 연구와 같은 언어적 분석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함께 검증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음절을 중심으로 하여 초성, 중성, 종성의 구분을 하여 철자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한 시인의 작품을 평가하려면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지만, 본 연구는 언어학적 특성 중 가장 미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소리의 특성을 분석의 중점으로 삼았다. 초성과 중성에는 어떤 자음이 주로 사용되었고, 중성에는 어떤 모음이 주로 사용되었는지를 통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김소월 시의 경향을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코퍼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모든 빈도 조사는 연구자가 주 텍스트를 분석하여 직접 수작업으로 실시하였다. 김종욱(2005)의 모든 시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하여 빈도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분석이 끝난 후에 2차례 확인 조사를 하였다.³⁾

3. 시기별 분석

2) 제외된 작품은 “겨울”, “고개”, “그대여 채찍을 멈추라”, “님 생각”, “밤마다”, “봄”, “세월”, “외로운 무덤”, “작은 방 속에 나 혼자”, “지도”이다.

3) 철자의 빈도 조사 이외에 시행이나 단어의 통계는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소리의 특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김소월의 작품은 크게 전기와 후기로 구분한다. 전기는 1920년부터 1925년까지이고, 후기는 1926년부터 1934년까지이다. 이것은 시집 <진달래꽃>의 발간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한 것으로 문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온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김소월의 미발표 작품도 함께 다루기로 한다. 왜냐하면 그 시인의 특성을 파악하려면 전체의 작품을 모두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 후기, 미발표 작품 순으로 살펴보겠다.

3.1. 전기

여기에서는 김소월의 전기 작품에 대해 알아본다. 김소월의 전기 작품은 1920년부터 1925년까지의 작품들이 해당한다. 분석은 1920년부터 시작하여 1925년까지 순차적으로 할 것이다.

3.1.1. 1920년

김소월의 1920년 작품에 대해 알아본다. 김소월이 1920년에 발표한 작품은 총 14편이다. 총 음절 수는 1,710개이고, 한 편당 평균 음절 수는 122개다. 우선 초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1920년 작품의 초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수	211	164	118	189	102	61	148	390	105	37
비율(%)	12.3	9.6	6.9	11.1	6.0	3.6	8.7	22.8	6.1	2.2
	ㅋ	ㅌ	ㄲ	ㅎ	ㅍ	ㅊ	ㅍ	ㅆ	ㅈ	합계
수	2	15	23	97	18	17	1	10	2	1710
비율(%)	0.1	0.9	1.4	5.7	1.1	1.0	0.1	0.6	0.1	

위 표를 보면 초성 총 1,710개 중 ‘ㅇ’의 수와 비율이 390개와 22.8%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⁴⁾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초성은 ‘ㄱ, ㄹ’이었다. 특이한 것이 바로 ‘ㄹ’의 빈도가 세 번째로 높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말은 음절 초성에 ‘ㄹ’이 오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4) ‘ㅇ’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초성이 아니다. 다만, 자료 정리의 편의를 위해서 그 내용을 여기에서 제시한다.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분류하였다.

오히려 김소월은 이 ‘ㄹ’을 1920년 시에서 초성으로 대체로 많이 사용했다. 반면에 ‘ㅋ, ㅁ, ㅈ’은 0.1%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1920년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ㅣ	ㄱ	ㅅ	ㅇ	ㅋ	ㅌ	ㅍ	ㅊ	ㅈ	ㅊ	ㅊ	ㄱ
수	254	76	73	257	198	349	139	171	9	11	40	
비율(%)	14.9	4.4	4.3	15.0	11.6	20.4	8.1	10.0	0.5	0.6	2.3	
	ㅋ	ㅌ	ㅍ	ㅊ	ㅈ	ㅊ	ㅈ	ㅈ	ㅈ	ㅈ	ㅈ	합계
수	69	23	6	9	5	15	3	0	3	0	1710	
비율(%)	4.0	1.4	0.4	0.5	0.3	0.9	0.2	0	0.2	0		

중성에서는 총 1,710개 중 ‘ㅌ’의 수와 비율이 349개와 20.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중성은 ‘ㅇ, ㅣ, ㄱ, ㅊ’ 순이었다. 반면 ‘ㅋ, ㅈ’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았고, ‘ㅊ, ㅈ, ㅈ, ㅈ, ㅈ, ㅈ, ㅈ’ 등이 낮은 빈도를 보였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1920년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표
수	61	230	0	173	92	35	59	59	0	2	0	0	1
비율(%)	8.4	31.7	0	23.9	12.7	4.8	8.1	8.1	0	0.3	0	0	0.1
	ㅎ	ㄱ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합계
수	0	0	3	0	0	0	8	0	1	0	1	725	
비율(%)	0	0	0.4	0	0	0	1.1	0	0.1	0	0.1		

중성은 총 725개 사용되었는데, 총 음절 대비 비율은 42.4%였다. 이것은 50% 이상의 시어를 중성 없이 사용했음을 알게 해 준다. 중성에서는 ‘ㄴ’의 수와 비율이 230개와 31.7%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ㄹ, ㅁ’이 10%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반면 ‘ㄷ, ㅈ, ㅋ, ㅌ, ㅎ, ㄱ, ㅈ, ㅈ, ㅈ, ㅈ, ㅈ, ㅈ’ 등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3.1.2. 1921년

김소월의 1921년 작품에 대해 알아본다. 김소월이 1921년에 발표한 작품은 총 21편이다. 총 음절 수는 1,811개이고, 한 편당 평균 음절 수는 86개다. 초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1921년 작품의 초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수	197	251	117	152	101	109	166	356	117	37
비율(%)	10.9	13.9	6.5	8.4	5.6	6.0	9.2	19.7	6.5	2.0
	ㅋ	ㅌ	ㄲ	ㅇ	ㅅ	ㅈ	ㅊ	ㅍ	ㅍ	합계
수	10	14	22	100	31	24	1	5	1	1811
비율(%)	0.6	0.8	1.2	5.5	1.7	1.3	0.1	0.3	0.1	

위 표를 보면 초성 총 1,811개 중 ‘ㅇ’의 수와 비율이 356개와 19.7%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초성은 ‘ㄴ, ㄱ’ 순이었다. 1920년과 다르게 1921년에는 ‘ㄴ’의 사용 비율이 ‘ㄷ’보다 높았다. 뒷부분에서 확인하겠지만 이러한 특성은 이후에도 계속 지속된다. 반면에 ‘ㅈ, ㅊ’은 비율이 0.1%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1921년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ㅣ	ㅑ	ㅓ	ㅡ	ㅕ	ㅗ	ㅜ	ㅛ	ㅝ	ㅟ	ㅡ
수	245	78	92	284	188	415	157	203	7	1	37
비율(%)	13.5	4.3	5.1	15.7	10.1	22.9	8.7	11.2	0.4	0.1	2.0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ㅤ	합계
수	53	8	6	14	2	14	6	0	0	1	1811
비율(%)	2.9	0.4	0.3	0.8	0.1	0.8	0.3	0	0	0.1	

중성에서는 총 1,811개 중 ‘ㅏ’의 수와 비율이 415개와 22.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중성은 ‘ㅡ, ㅣ, ㅓ, ㅕ’ 순이었다. 1920년에 비해 ‘ㅓ’가 ‘ㅕ’보다 사용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ㅛ, ㅜ’가 한 번도 쓰이지 않았고, ‘ㅝ, ㅞ, ㅟ, ㅠ, ㅡ, ㅢ, ㅣ’ 등이 낮은 빈도를 보였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1921년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표
수	51	251	0	202	120	48	59	68	0	0	0	0	0
비율(%)	6.3	31.0	0	25.0	14.8	5.9	7.3	8.4	0	0	0	0	0
	ㅎ	ㄱ	ㅍ	ㅊ	ㅌ	ㄴ	ㄹ	ㅁ	ㅂ	ㅅ	ㅇ	합계	
수	0	0	0	0	0	0	8	0	1	0	1	809	
비율(%)	0	0	0	0	0	0	1.0	0	0.1	0	0.1		

중성은 총 809개 사용되었는데, 총 음절 대비 비율은 44.7%였다. 중성 중 ‘ㄴ’의 수와 비율이 251개와 31.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1920년과 마찬가지로 ‘ㄹ, ㅁ’이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ㄷ, ㅈ, ㅊ, ㅋ, ㅌ, ㅎ, ㄱ, ㅍ, ㅊ, ㅌ, ㄴ, ㄹ, ㅁ, ㅂ, ㅅ, ㅇ’ 등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3.1.3. 1922년

김소월의 1922년 작품에 대해 알아본다. 1922년에 발표된 작품은 총 33편이다. 총 음절 수는 4,127개이고, 한 편당 평균 음절 수는 125개다. 초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1922년 작품의 초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수	500	453	352	339	261	199	373	926	276	42	
비율(%)	12.1	11.0	8.5	8.2	6.3	4.8	9.0	22.4	6.7	1.0	
	ㅋ	ㅌ	표	ㅎ	ㄱ	ㅍ	ㅊ	ㅌ	ㅍ	ㅊ	합계
수	17	35	26	194	61	46	6	10	11	4127	
비율(%)	0.4	0.9	0.6	4.7	1.5	1.1	0.2	0.2	0.3		

위 표를 보면 역시 초성 총 4,127개 중 ‘ㅇ’의 수와 비율이 926개와 22.4%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초성은 ‘ㄱ, ㄴ’ 순이었다. 이전과는 다르게 ‘ㄹ’의 사용 비율은 점점 낮아져서 ‘ㄷ’보다 뒤쳐졌다. 반면 ‘ㅁ, ㅂ’과 ‘ㅅ’은 비율이 각각 0.2%, 0.3%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3-2와 같다.

표 4-1. 1923년 작품의 초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수	317	333	279	270	158	118	237	601	153	46
비율(%)	11.6	12.2	10.3	9.9	5.8	4.3	8.7	22.1	5.6	1.7
	ㅋ	ㅌ	ㅍ	ㅎ	ㄱ	ㅊ	ㅍ	ㅆ	ㅈ	합계
수	6	17	12	107	17	39	4	8	1	2723
비율(%)	0.2	0.6	0.4	3.9	0.6	1.4	0.2	0.3	0.04	

위 표를 보면 역시 초성 총 2,723개 중 ‘ㅇ’의 수와 비율이 601개와 22.1%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초성은 ‘ㄴ, ㄱ, ㄷ’ 순이었다. 이전과 다르게 ‘ㄷ’의 사용 비율이 10% 이상으로 더 높아졌다. 반면에 ‘ㅈ’, ‘ㅋ, ㅌ’, ‘ㅆ’은 비율이 각각 0.04%, 0.2%, 0.3%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 1923년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ㅣ	ㅏ	ㅑ	ㅡ	ㅓ	ㅕ	ㅗ	ㅛ	ㅜ	ㅠ	ㅣ	
수	393	147	136	410	281	623	199	297	17	13	30	
비율(%)	14.4	5.4	5.0	15.1	10.3	22.9	7.3	10.9	0.6	0.5	1.1	
	ㅓ	ㅕ	ㅗ	ㅛ	ㅜ	ㅠ	ㅑ	ㅓ	ㅕ	ㅗ	ㅛ	합계
수	99	16	6	28	8	12	6	0	1	1	2723	
비율(%)	3.6	0.6	0.2	1.0	0.3	0.4	0.2	0	0.04	0.04		

중성에서는 총 2,723개 중 ‘ㅓ’의 수와 비율이 623개와 22.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중성은 ‘ㅡ, ㅣ, ㅏ, ㅑ’ 순이었다. ‘ㅓ’의 사용 비율은 다시 10% 이상으로 높아졌다. 반면 ‘ㅕ’가 한 번도 쓰이지 않았고, ‘ㅗ, ㅛ, ㅕ, ㅠ, ㅜ, ㅑ, ㅓ, ㅕ’가 낮은 빈도를 보였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4-3과 같다.

표 4-3. 1923년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수	74	383	1	238	129	104	130	59	0	0	0	0	0
비율(%)	6.6	33.9	0.1	21.1	11.4	9.2	11.5	5.2	0	0	0	0	0
	ㅎ	ㄱ	ㅊ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ㅑ	합계	
수	0	0	0	0	0	0	9	2	0	0	0	1129	
비율(%)	0	0	0	0	0	0	0.8	0.2	0	0	0		

중성은 총 1,129개 사용되었는데, 총 음절 대비 비율은 41.5%였다. 그 중 ‘ㄴ’의 수와 비율이 383개와 33.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ㄹ, ㅁ, ㅅ’이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ㅈ, ㅊ,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등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3.1.5. 1924년

김소월의 1924년 작품에 대해 알아본다. 1924년에 발표된 작품은 총 10편이다. 총 음절 수는 1,468개이고, 한 편당 평균 음절 수는 147개다. 초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5-1과 같다.

표 5-1. 1924년 작품의 초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수	173	162	110	145	99	70	121	324	90	22
비율(%)	11.8	11.0	7.5	9.9	6.7	4.8	8.2	22.1	6.1	1.5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합계
수	7	14	16	74	10	22	0	5	4	1468
비율(%)	0.5	1.0	1.1	5.0	0.7	1.5	0	0.3	0.3	

위 표를 보면 역시 초성 총 1,468개 중 ‘ㅇ’의 수와 비율이 324개와 22.1%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초성은 ‘ㄱ, ㄴ’ 순이었다. ‘ㄷ’의 사용 비율은 다시 10% 미만으로 낮아졌다. 반면에 ‘ㆉ’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ㆊ, ㆋ’, ‘ㅋ’, ‘ㆇ’은 비율이 각각 0.3%, 0.5%, 0.7%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5-2와 같다.

표 5-2. 1924년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ㅣ	ㅑ	ㅓ	ㅡ	ㅕ	ㅗ	ㅛ	ㅜ	ㅠ	ㅝ	ㅞ	ㅟ
수	236	60	63	206	138	313	118	164	4	8	43	
비율(%)	16.1	4.1	4.3	14.0	9.4	21.3	8.0	11.2	0.3	0.6	2.9	
	ㅛ	ㅜ	ㅠ	ㅝ	ㅞ	ㅟ	ㅠ	ㅡ	ㅢ	ㅣ	ㅤ	합계
수	54	21	2	12	5	15	4	0	0	2		1468
비율(%)	3.7	1.4	0.1	0.8	0.3	1.0	0.3	0	0	0.1		

중성에서는 총 1,468개 중 ‘ㄱ’의 수와 비율이 313개와 21.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중성은 ‘ㅇ, 一, ㅅ’ 순이었다. ‘ㄴ’의 사용 비율은 다시 10% 미만으로 낮아졌다. 반면 ‘ㅋ, ㅌ’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았고, ‘ㄱ, ㄴ, ㅍ, ㅊ, ㅌ, ㅋ, ㅌ’ 등이 매우 낮은 빈도를 보였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5-3과 같다.

표 5-3. 1924년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수	36	195	0	139	69	34	76	63	0	0	0	0	0
비율(%)	5.8	31.7	0	22.6	11.2	5.5	12.3	10.2	0	0	0	0	0
	ㅎ	ㄱ	ㅍ	ㅊ	ㅌ	ㅇ	ㄹ	ㅌ	ㅌ	ㅌ	ㅌ	합계	
수	0	0	0	0	0	0	2	0	2	0	0	616	
비율(%)	0	0	0	0	0	0	0.3	0	0.3	0	0		

중성은 총 616개 사용되었는데, 총 음절 대비 비율은 42.0%였다. 그 중 ‘ㄴ’의 수와 비율이 195개와 31.7%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ㄹ, ㅁ, ㅅ, ㅇ’이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전에 비해 ‘ㅇ’이 10% 이상으로 높아졌다. 반면에 ‘ㄷ,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ㅍ, ㅊ, ㅌ, ㅌ, ㅌ, ㅌ, ㅌ’ 등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3.1.6. 1925년

김소월의 1925년 작품에 대해 알아본다. 1925년에 발표된 작품은 총 89편으로 다른 해에 비해 가장 많았다. 총 음절 수는 12,445개이고, 한 편당 평균 음절 수는 140개다. 초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6-1과 같다.

표 6-1. 1925년 작품의 초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수	1330	1413	1087	1190	808	641	1109	2634	783	227
비율(%)	10.7	11.4	8.7	9.6	6.5	5.2	8.9	21.2	6.3	1.8
	ㅋ	ㅌ	ㅍ	ㅎ	ㄱ	ㅍ	ㅍ	ㅍ	ㅍ	합계
수	36	68	132	602	136	170	23	36	20	12445
비율(%)	0.3	0.6	1.1	4.8	1.1	1.4	0.2	0.3	0.2	

위 표를 보면 역시 초성 총 12,445개 중 ‘ㅇ’의 수와 비율이 2,634개와 21.2%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초성은 ‘ㄴ, ㄱ’ 순이었다. 반면에 ‘ㅃ, ㅈ’, ‘ㅋ, ㅆ’, ‘ㅌ’은 비율이 각각 0.2%, 0.3%, 0.6%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6-2와 같다.

표 6-2. 1925년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ㄱ	ㅋ	ㆁ	ㄴ	ㄷ	ㄹ	ㄷ	ㄱ	ㄴ	ㄷ	ㄹ
수	1686	496	534	1960	1265	2954	1055	1330	50	46	296
비율(%)	13.6	4.0	4.3	15.8	10.2	23.7	8.5	10.7	0.4	0.4	2.4
	ㄱ	ㅋ	ㆁ	ㄴ	ㄷ	ㄹ	ㄷ	ㄱ	ㄴ	ㄷ	합계
수	457	106	18	65	26	76	17	0	1	7	12445
비율(%)	3.7	0.9	0.2	0.5	0.2	0.6	0.1	0	0.01	0.1	

중성에서는 총 12,445개 중 ‘ㄱ’의 수와 비율이 2,954개와 23.7%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중성은 ‘ㄴ, ㄷ, ㄹ, ㄱ’ 순이었다. ‘ㄱ’의 사용 비율은 다시 10% 이상으로 높아졌다. 반면에 ‘ㅃ’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았고, ‘ㄱ, ㄴ, ㄷ, ㄹ, ㄱ, ㄷ, ㄹ, ㄱ, ㄷ, ㄹ’ 등이 매우 낮은 빈도를 보였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6-3과 같다.

표 6-3. 1925년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ㄴ	ㅅ	ㅇ	ㅈ	ㅊ	ㅋ	ㅌ	ㅍ
수	380	1696	2	1203	707	282	575	349	1	0	0	0	0
비율(%)	7.2	32.2	0.04	22.9	13.4	5.4	10.9	6.6	0.02	0	0	0	0
	ㅎ	ㄱ	ㅃ	ㄴ	ㄷ	ㄹ	ㄷ	ㄱ	ㄴ	ㄷ	ㅃ	합계	
수	0	0	4	0	0	0	48	10	6	0	3	5266	
비율(%)	0	0	0.1	0	0	0	0.9	0.2	0.1	0	0.1		

중성은 총 5,266개 사용되었는데, 총 음절 대비 비율은 42.3%였다. 그 중 ‘ㄴ’의 수와 비율이 1,696개와 32.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ㄹ, ㅁ, ㅅ’이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ㅇ’은 다시 10% 미만으로 낮아졌다. 반면에 ‘ㅊ, ㅋ, ㅌ, ㅍ, ㅎ, ㄱ, ㄴ, ㄷ, ㄹ, ㅁ, ㅅ’ 등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3.1.7. 종합

여기에서는 김소월의 작품 중 전기(1920년-1925년)에 발표된 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전기에 발표한 작품은 총 187편이다. 총 음절 수는 24,284개이고, 한 편당 평균 음절 수는 130개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간이 갈수록 한 편당 평균 음절 수가 증가했다. 그만큼 하나의 시에 많은 시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점점 우세했음을 알 수 있다.

초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7-1과 같다.

표 7-1. 전기 작품의 초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수	2728	2776	2063	2285	1529	1198	2154	5231	1524	411
비율(%)	11.2	11.4	8.5	9.4	6.3	4.9	8.9	21.5	6.3	1.7
	ㅋ	ㅌ	ㅍ	ㅎ	ㅊ	ㅌ	ㅍ	ㅆ	ㅈ	합계
수	78	163	231	1174	273	318	35	74	39	24284
비율(%)	0.3	0.7	1.0	4.8	1.1	1.3	0.1	0.3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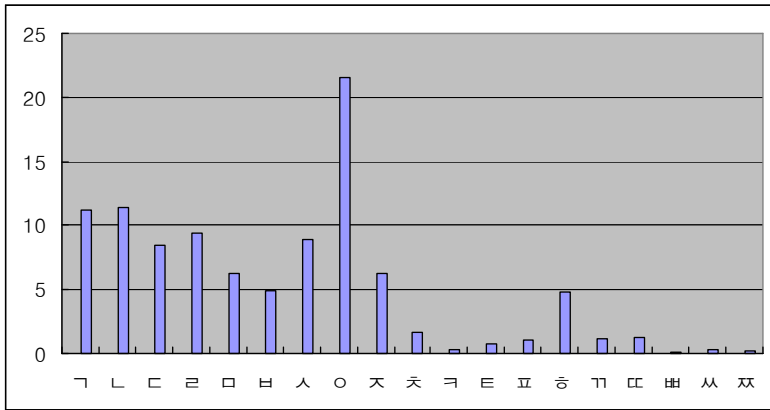


그림 1. 전기 작품의 초성 비율

위 표와 그림을 보면 초성 총 24,284개 중 ‘ㅇ’의 수와 비율이 5,231개와 21.5%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ㅇ’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전기의 모든 시에서 항상 일정했다. 이 사실은 시어 중 초성이 없는 음절이 많다는 것을 알려 준다. ‘ㅇ’은 음가가 없으므로 초성이 아니기 때

문이다. 또한 여기에 비음인 ‘ㄴ(11.4%), ㄹ(6.3%)’, 유음인 ‘ㄹ(9.4%)’의 비율을 합치면 48.6%로 매우 높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특성은 김소월이 음절 초성에 부드러운 공명음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음운론적으로 보통 음절 초성에는 자음이 꼭 와야 하고, 폐쇄음과 같은 강한 자음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지만, 김소월은 오히려 그것에 반대되는 성향의 시어를 선택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초성은 ‘ㄴ, ㄱ’이었다. 특이한 것은 ‘ㄹ’의 빈도가 네 번째로 높았다는 것이다. 1920년에서도 지적했듯이 일반적으로 우리말은 음절 초성에 ‘ㄹ’이 오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오히려 김소월은 이 ‘ㄹ’을 전기 시에서 초성으로 대체로 많이 사용했다. 이것은 두음법칙의 적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마찰음인 ‘ㅅ’도 8.9%로 폐쇄음인 ‘ㄷ, ㅌ’보다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ㅋ, ㅌ, ㅍ, ㅊ, ㅌ’은 1.0% 미만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경음과 격음의 사용 비율도 각각 3.0%, 3.7%로 전반적으로 낮다. 이러한 사실은 김소월이 음절 초성에서 경음과 격음의 선택을 선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7-2와 같다.

표 7-2. 전기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ㄱ	ㅋ	ㆁ	ㅇ	ㄷ	ㅌ	ㄸ	ㅊ	ㄱ	ㆁ	ㄷ
수	3468	1072	1037	3763	2475	5498	1982	2677	101	101	522
비율(%)	14.3	4.4	4.3	15.5	10.2	22.6	8.2	11.0	0.4	0.4	2.2
	ㄷ	ㅌ	ㅍ	ㅊ	ㄱ	ㅋ	ㆁ	ㅇ	ㄷ	ㆁ	합계
수	882	213	40	172	64	157	40	0	8	12	24284
비율(%)	3.6	0.9	0.2	0.7	0.3	0.7	0.2	0	0.03	0.1	

표 7-3. 전기 작품의 종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표
수	708	3332	4	2378	1357	618	1095	714	1	2	0	0	1
비율(%)	6.8	32.2	0.04	23.0	13.1	6.0	10.6	6.9	0.01	0.02	0	0	0.01
	ㅎ	ㄱ	ㅅ	ㅈ	ㅊ	ㄴ	ㄹ	ㅁ	ㅂ	ㅅ	ㅈ	ㆁ	합계
수	0	0	8	0	0	0	93	12	16	0	6	10345	
비율(%)	0	0	0.1	0	0	0	0.9	0.1	0.2	0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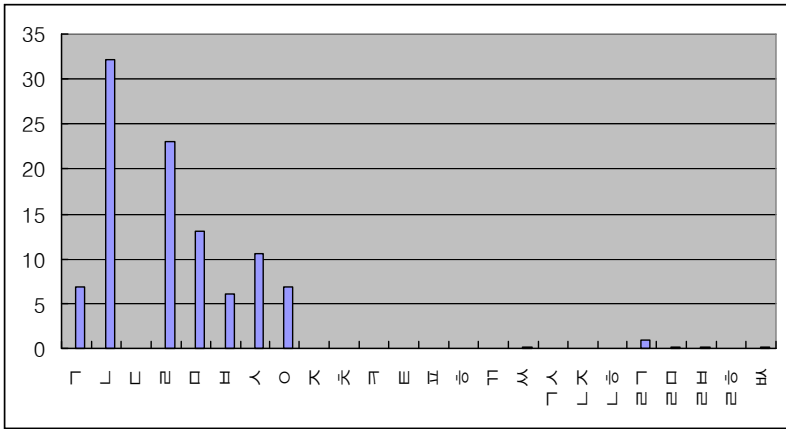


그림 3. 전기 작품의 종성 비율

종성은 총 10,345개 사용되었는데, 총 음절 대비 비율은 42.6%였다. 이것은 50% 이상의 시어를 종성이 없이 사용했음을 알려준다. 종성에서는 ‘ㄴ’의 수와 비율이 3,332개와 32.2%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ㄴ’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전기의 모든 시에서 항상 일정했다. 그 다음으로는 ‘ㄷ, ㄹ, ㅁ, ㅂ, ㅅ’ 순으로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ㄴ, ㄷ, ㄹ’은 모두 공명음인데 높은 비율을 보였다. ‘ㅇ’까지 합쳐서 이들 공명음의 비율은 무려 75.2%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특성은 김소월은 종성이 없는 음절을 선호했고, 사용하더라도 음악적 특성을 가진 공명음을 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음운론적으로 보통 종성이 없는 음절과, 있더라도 공명음과 같은 강한 부드러운 자음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김소월은 그에 잘 부합하는 성향의 시어를 선택한 것이다.

반면 ‘ㅋ, ㆁ, ㅎ, ㄱ, ㅅ, ㅈ, ㅊ, ㄴ,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등은 1.0% 미만의 아주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

처럼 장애음과 겹자음이 음절 말음에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음운론적으로도 일반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3.2. 후기

이번에는 <진달래꽃> 발간 이후인 김소월의 후기 작품에 대해 알아본다. 김소월의 후기 작품은 1926년부터 1934년까지의 작품들이 해당하는데, 1926년, 1929년, 1931년, 1934년에만 작품이 발표되었다.

3.2.1. 1926년

김소월의 1926년 작품에 대해 알아본다. 김소월이 1926년에 발표한 작품은 총 16편이다. 총 음절 수는 3,740개이고, 한 편당 평균 음절 수는 234개다. 초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8-1과 같다.

표 8-1. 1926년 작품의 초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ㄴ	ㅇ	ㅈ	ㅊ	
수	407	444	354	299	256	185	285	740	266	103
비율(%)	10.9	11.9	9.5	8.0	6.9	5.0	7.6	19.8	7.1	2.8
	ㅋ	ㅌ	ㄲ	ㅎ	ㄱ	ㄷ	ㅃ	ㅆ	ㅈ	합계
수	13	23	40	176	62	38	17	11	21	3740
비율(%)	0.4	0.6	1.1	4.7	1.7	1.0	0.5	0.3	0.6	

위 표를 보면 초성 총 3,740개 중 ‘ㅇ’의 수와 비율이 740개와 19.8%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것은 ‘ㄴ, ㄱ’ 순이었다. 반면에 ‘ㅆ’, ‘ㅋ’, ‘ㅃ’, ‘ㅌ, ㅈ’은 비율이 각각 0.3%, 0.4%, 0.5%, 0.6%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8-2와 같다.

표 8-2. 1926년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ㅣ	ㄱ	ㅅ	ㅡ	ㅑ	ㅓ	ㅕ	ㅗ	ㅛ	ㅜ	ㅠ	
수	516	133	134	502	351	976	301	474	20	17	49	
비율(%)	13.8	3.6	3.6	13.4	9.4	26.1	8.1	12.7	0.5	0.5	1.3	
	ㅋ	ㆁ	ㅓ	ㅕ	ㅑ	ㅓ	ㅕ	ㅗ	ㅛ	ㅜ	ㅛ	합계
수	165	35	4	23	4	33	2	0	1	0	3740	
비율(%)	4.4	0.9	0.1	0.6	0.1	0.9	0.1	0	0.03	0		

중성에서는 총 3,740개 중 ‘ㅓ’의 수와 비율이 976개와 26.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중성은 ‘ㅣ, ㅡ, ㅗ’ 순이었다. 반면에 ‘ㅑ, ㆁ’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았고, ‘ㅛ, ㅜ, ㅛ, ㅛ, ㅛ, ㅛ, ㅛ, ㅛ, ㅛ’ 등이 1.0%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8-3과 같다.

표 8-3. 1926년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수	107	512	8	387	157	71	162	129	6	4	0	8	3
비율(%)	6.7	31.9	0.5	24.1	9.8	4.4	10.1	8.0	0.4	0.3	0	0.5	0.2
	ㅎ	ㅊ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ㅛ	ㅛ	합계
수	5	1	20	0	3	1	9	2	3	1	5	1604	
비율(%)	0.3	0.1	1.3	0	0.2	0.1	0.6	0.1	0.2	0.1	0.3		

중성은 총 1,604개 사용되었는데, 총 음절 대비 비율은 42.9%였다. 그 중 ‘ㄴ’의 수와 비율이 512개와 31.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ㄹ, ㅅ’이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ㅁ, ㅇ’은 이전에 비해 10% 미만으로 낮아졌다. 반면에 ‘ㅋ, ㅊ, ㅌ’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ㅈ, ㅊ, ㅌ, ㅑ, ㅓ, ㅕ, ㅗ, ㅛ, ㅜ, ㅛ, ㅛ’ 등은 1.0%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3.2.2. 1929년

김소월의 1929년 작품에 대해 알아본다. 1929년에 발표된 작품은 총 3편으로 다른 해에 비해 매우 적었다. 총 음절 수는 976개이고, 한 편당 평균 음절 수는 325개다. 초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9-1과 같다.

표 9-1. 1929년 작품의 초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수	103	141	79	82	64	50	101	195	67	12
비율(%)	10.6	14.5	8.1	8.4	6.6	5.1	10.4	20.0	6.9	1.2
	ㅋ	ㅌ	ㄲ	ㅎ	ㅍ	ㅊ	ㅍ	ㅆ	ㅈ	합계
수	5	7	5	41	18	4	0	1	1	976
비율(%)	0.5	0.7	0.5	4.2	1.8	0.4	0	0.1	0.1	

위 표를 보면 초성 총 976개 중 ‘ㅇ’의 수와 비율이 195개와 20.0%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것은 ‘ㄴ, ㄱ, ㅅ’ 순이었다. 반면에 ‘ㅊ’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ㅋ, ㅌ, ㄲ, ㅍ, ㅆ, ㅈ’ 등은 1.0%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9-2와 같다.

표 9-2. 1929년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ㅣ	ㅅ	ㅅ	ㅡ	ㅅ	ㅅ	ㅅ	ㅅ	ㅅ	ㅅ	ㅅ
수	133	63	28	108	60	313	46	131	6	2	15
비율(%)	13.6	6.5	2.9	11.1	6.2	32.1	4.7	13.4	0.6	0.2	1.5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합계
수	35	7	1	7	1	14	0	1	0	5	976
비율(%)	3.6	0.7	0.1	0.7	0.1	1.4	0	0.1	0	0.5	

중성에서는 총 976개 중 ‘ㅅ’의 수와 비율이 313개와 32.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중성은 ‘ㅣ, ㅅ, ㅡ’ 순이었다. 반면에 ‘ㅅ, ㅅ, ㅅ, ㅅ, ㅅ, ㅅ, ㅅ’ 등이 1.0%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9-3과 같다.

표 9-3. 1929년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ㄲ
수	37	96	0	90	62	10	76	22	0	0	0	0	0
비율(%)	9.3	24.1	0	22.6	15.6	2.5	19.1	5.5	0	0	0	0	0
	ㅎ	ㅍ	ㅆ	ㅈ	ㅊ	ㅋ	ㅌ	ㄲ	ㅅ	ㅆ	ㅈ	ㅊ	합계
수	0	0	0	0	0	5	0	0	0	0	0	0	398
비율(%)	0	0	0	0	0	1.3	0	0	0	0	0	0	

중성은 총 398개 사용되었는데, 총 음절 대비 비율은 40.8%였다. 그 중

‘ㄴ’의 수와 비율이 96개와 24.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ㄹ, ㅅ, ㅁ’이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ㄷ, ㅈ, ㅊ, ㅋ, ㅌ, ㅍ, ㅎ, ㅊ, ㅆ, ㅊ, ㅌ, ㄴ, ㄹ, ㅍ, ㅌ, ㅍ, ㅌ’ 등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3.2.3. 1931년

김소월의 1931년 작품에 대해 알아본다. 1931년에 발표된 작품은 총 2편으로 다른 해에 비해 가장 적었다. 총 음절 수는 317개이고, 한 편당 평균 음절 수는 159개다. 초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0-1과 같다.

표 10-1. 1931년 작품의 초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수	18	34	44	26	20	26	19	84	21	4
비율(%)	5.7	10.7	13.9	8.2	6.3	8.2	6.0	26.5	6.6	1.3
	ㅋ	ㅌ	ㅍ	ㅎ	ㅊ	ㅆ	ㅈ	ㅊ	ㅆ	합계
수	1	3	1	10	2	3	0	1	0	317
비율(%)	0.3	1.0	0.3	3.2	0.6	1.0	0	0.3	0	

위 표를 보면 초성 총 317개 중 ‘ㅇ’의 수와 비율이 84개와 26.5%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것은 ‘ㄷ, ㄴ’ 순으로 이전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ㅆ, ㅈ’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ㅋ, ㅌ, ㅍ, ㅆ’ 등은 1.0%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0-2와 같다.

표 10-2. 1931년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ㅣ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수	54	3	11	37	20	83	27	38	4	6	19
비율(%)	17.0	1.0	3.5	11.7	6.3	26.2	8.5	12.0	1.3	1.9	6.0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ㅣ	합계
수	10	2	0	1	1	1	0	0	0	0	317
비율(%)	3.2	0.6	0	0.3	0.3	0.3	0	0	0	0	

중성에서는 총 317개 중 ‘ㅗ’의 수와 비율이 83개와 26.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중성은 ‘ㅣ, ㅓ, ㅑ’ 순이었다. 반

면에 ‘ㄱ, ㅋ, ㆁ, ㆅ, ㆆ’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았고, ‘ㅈ, ㅊ, ㅉ, ㅊ’ 등이 1.0%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0-3과 같다.

표 10-3. 1931년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ㆅ
수	6	46	3	28	26	7	9	6	1	0	0	9	0
비율(%)	4.1	31.1	2.0	18.9	17.6	4.7	6.1	4.1	0.7	0	0	6.1	0
	ㅎ	ㄱ	ㅅ	ㅈ	ㅊ	ㄴ	ㄹ	ㅁ	ㅂ	ㅅ	ㅈ	ㅊ	합계
수	0	0	3	0	0	1	0	0	1	1	1	1	148
비율(%)	0	0	0.7	0	0	0.7	0	0	0.7	0.7	0.7	0.7	

중성은 총 148개인데, 총 음절 대비 비율은 46.7%였다. ‘ㄴ’의 수와 비율이 46개와 31.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ㄹ, ㅁ’이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ㅈ, ㅊ, ㅉ, ㅊ, ㅎ, ㄱ, ㅅ, ㅈ, ㅊ, ㄴ, ㄹ, ㅁ’ 등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ㅈ, ㅅ, ㄴ, ㄹ, ㅁ, ㅂ’은 1.0%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3.2.4. 1934년

김소월의 1934년 작품에 대해 알아본다. 1934년에 발표된 작품은 총 19편이다. 총 음절 수는 4,075개이고, 한 편당 평균 음절 수는 215개다. 초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1-1과 같다.

표 11-1. 1934년 작품의 초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수	516	459	357	302	257	158	375	833	250	79
비율(%)	12.7	11.3	8.8	7.4	6.3	3.9	9.2	20.4	6.1	1.9
	ㅋ	ㆁ	ㆅ	ㆆ	ㄱ	ㄴ	ㅅ	ㅈ	ㅊ	합계
수	27	40	30	228	61	56	12	24	11	4075
비율(%)	0.7	1.0	0.7	5.6	1.5	1.4	0.3	0.6	0.3	

초성은 총 4,075개 중 ‘ㅇ’의 수와 비율이 833개와 20.4%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초성은 ‘ㄱ, ㄴ’ 순이었다. 반면에 ‘ㅋ, ㆁ, ㆅ, ㆆ, ㅅ, ㅈ, ㅊ’ 등은 1.0%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1-2와 같다.

표 11-2. 1934년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ㅣ	ㄱ	ㄴ	ㅇ	ㄷ	ㅌ	ㅍ	ㅊ	ㅋ	ㆁ	ㆅ
수	637	179	141	545	377	1057	264	485	21	46	36
비율(%)	15.6	4.4	3.5	13.4	9.3	25.9	6.5	11.9	0.5	1.1	0.9
	ㅋ	ㅌ	ㅍ	ㅊ	ㄱ	ㄴ	ㅇ	ㅊ	ㅋ	ㆁ	합계
수	126	63	4	35	8	38	3	0	2	8	4075
비율(%)	3.1	1.6	0.1	0.9	0.2	0.9	0.1	0	0.1	0.2	

중성에서는 총 4,075개 중 ‘ㅣ’의 수와 비율이 1,057개와 25.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중성은 ‘ㅇ, ㄱ, ㅌ’ 순이었다. 반면에 ‘ㅋ’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았고, ‘ㄱ, ㄴ, ㅇ, ㅊ, ㅋ, ㆁ, ㆅ’ 등이 1.0%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1-3과 같다.

표 11-3. 1934년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ㆅ
수	99	540	0	364	203	132	245	161	0	0	0	1	0
비율(%)	5.6	30.7	0	20.7	11.5	7.5	13.9	9.1	0	0	0	0.1	0
	ㅎ	ㅌ	ㅍ	ㅊ	ㅅ	ㅇ	ㄹ	ㅍ	ㅊ	ㅌ	합계		
수	0	0	5	0	0	1	4	1	2	0	3	1761	
비율(%)	0	0	0.3	0	0	0.1	0.2	0.1	0.1	0	0.2		

중성은 총 1,761개 사용되었는데, 총 음절 대비 비율은 43.2%였다. 그 중 ‘ㄴ’의 수와 비율이 540개와 30.7%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ㄹ, ㅅ, ㅁ’이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ㅈ, ㅊ, ㅋ, ㆁ, ㆅ, ㅎ, ㅌ, ㅍ, ㅊ, ㅌ, ㅍ, ㅊ’ 등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ㆁ, ㆅ, ㅌ, ㅍ, ㅊ, ㅌ’ 등은 1.0%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3.2.5. 종합

여기에서는 김소월 작품 중 후기(1926년-1934년)에 발표된 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후기에 발표된 작품은 총 40편으로 전기보다 훨씬 적었다.

그러나 총 음절 수는 9108개이고, 한 편당 평균 음절 수는 228개다. 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 편당 평균 음절 수가 높기 때문에, 후기에는 한 편의 시에 더 많은 시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평균 음절 수가 문학계에서 분류하는 전기와 후기의 구분이 타당함을 증명해 준다고 하겠다. 초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2-1과 같다.

표 12-1. 후기 작품의 초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수	1044	1078	834	709	597	419	780	1852	604	198
비율(%)	11.5	11.8	9.2	7.8	6.6	4.6	8.6	20.3	6.6	2.2
	ㅋ	ㅌ	ㅍ	ㅎ	ㅊ	ㅌ	ㅍ	ㅆ	ㅈ	합계
수	46	73	76	455	143	101	29	37	33	9108
비율(%)	0.5	0.8	0.8	5.0	1.6	1.1	0.3	0.4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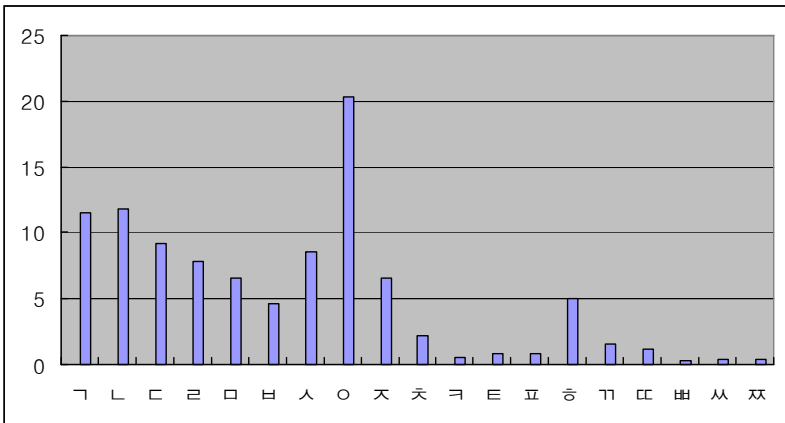


그림 4. 후기 작품의 초성 비율

위 표와 그림을 보면 초성 총 9,108개 중 ‘ㅇ’의 수와 비율이 1,852개와 20.3%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ㅇ’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전기뿐만 아니라 후기의 모든 시에서도 항상 일정했다. 이것도 역시 김소월의 시어 중 초성이 없는 음절이 많다는 것을 알려 준다. 그리고 여기에 비음인 ‘ㄴ(11.8%), ㅁ(6.6%)’, 유음인 ‘ㄹ(7.8%)’의 비율을 합치면 46.5%로 매우 높다. 이것은 김소월이 음절 초성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부드러운 공명음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이 점은

전기와 마찬가지로 음운론적인 일반 특성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초성은 ‘ㄴ, ㄱ’순이었다. ‘ㄹ’의 비율은 7.8%로 전기에 비해서 다소 떨어졌지만, ‘ㄷ, ㅅ’은 각각 9.2%, 8.6%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것은 전기에 비해 후기에는 두음법칙의 적용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ㅋ, ㅌ, ㅍ, ㅃ, ㅆ, ㅈ’은 1.0% 미만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경음과 격음의 사용 비율도 각각 3.8%, 4.3%로 전반적으로 낮다. 이러한 사실은 전기와 마찬가지로 후기에서도 감소율이 경음과 격음의 시어 선택을 선호하지 않았음을 드러내 준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2-2와 같다.

표 12-2. 후기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ㅣ	ㄱ	ㅋ	ㄴ	ㄷ	ㅌ	ㅍ	ㅃ	ㅆ	ㅈ	ㅊ
수	1340	378	314	1192	808	2429	638	1128	51	71	119
비율(%)	14.7	4.2	3.5	13.1	8.9	26.7	7.0	12.4	0.6	0.8	1.3
	ㄹ	ㅍ	ㅆ	ㅈ	ㅊ	ㅅ	ㅆ	ㅈ	ㅊ	ㅅ	ㅆ
수	336	107	9	66	14	86	5	1	3	13	9108
비율(%)	3.7	1.2	0.1	0.7	0.2	0.9	0.1	0.01	0.03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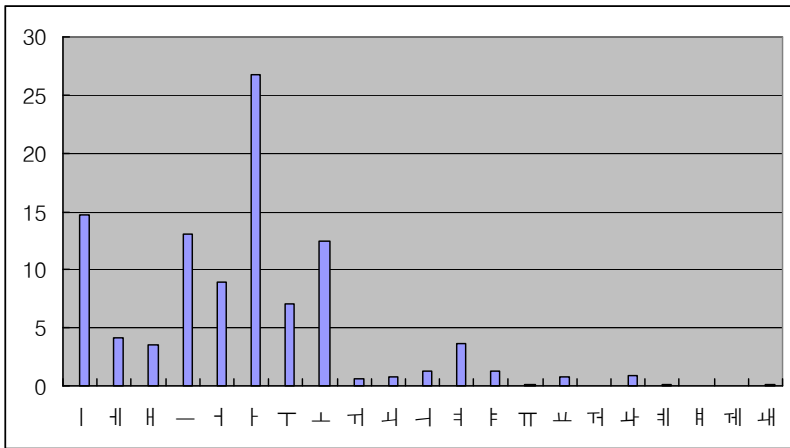


그림 5. 후기 작품의 중성 비율

중성에서는 총 9,108개 중 ‘ㅌ’의 수와 비율이 2,429개와 26.7%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ㅏ’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전기와 후기 모두에서 항상 일정했다. 후기에서도 ‘ㅏ’가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저모음으로 공명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모음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중성은 ‘ㅣ’, ‘ㅡ’, ‘ㅓ’ 순으로, 전기에 비해 ‘ㅓ’의 비율이 다소 낮아졌다. 또한 ‘ㅣ’는 가장 안정적인 전설고모음이기 때문이고, ‘ㅡ’는 우리 국어의 무표 모음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하겠다. 전기와 마찬가지로 ‘ㅓ’는 ‘ㅓ’보다도 낮은 7.0%의 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ㅓ’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았고, ‘ㄱ, ㄴ, ㅇ, ㅈ, ㅊ, ㅋ, ㅌ, ㄷ, ㅎ’ 등이 1.0% 미만의 낮은 빈도를 보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이중모음의 비율이 낮은 것은 후기에서도 김소월이 그만큼 단순모음을 선호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2-3과 같다.

표 12-3. 후기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ㅎ
수	249	1194	11	869	448	220	492	318	7	4	0	18	3
비율(%)	6.4	30.5	0.3	22.2	11.5	5.6	12.6	8.1	0.2	0.1	0	0.5	0.1
	ㅇ	ㅓ	ㅕ	ㅖ	ㅗ	ㅛ	ㅜ	ㅠ	ㅡ	ㅣ	ㅑ	ㅓ	ㅕ
수	5	1	28	0	3	3	18	3	6	2	9	3911	
비율(%)	0.1	0.03	0.7	0	0.1	0.1	0.5	0.1	0.2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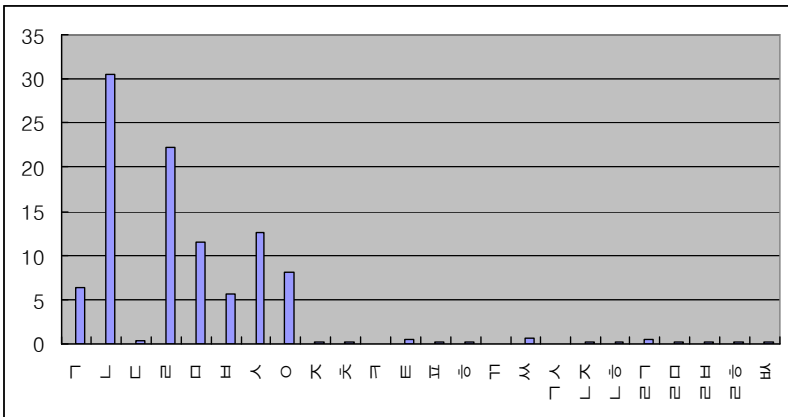


그림 6. 후기 작품의 중성 비율

중성은 총 3,911개 사용되었는데, 총 음절 대비 비율은 42.9%였다. 이것은 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50% 이상의 시어를 중성이 없이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중성에서는 ‘ㄴ’의 수와 비율이 1194개와 30.5%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ㄴ’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전기와 후기 모두에서 항상 일정했다. 그 다음으로는 ‘ㄹ, ㅅ, ㅁ’ 순으로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ㄴ, ㄹ, ㅁ’은 모두 공명음인데 높은 비율을 보였다. ‘ㅇ’까지 합쳐서 이들 공명음의 비율은 무려 72.3%다. 이것은 후기에서도 김소월 시의 음악적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 대부분 중성 없는 시어를 선택했으며, 중성 중에서도 가장 부드러운 공명음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반면 ‘ㅋ, ㆁ’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ㄷ, ㅈ, ㅊ, ㅌ, ㅍ, ㅎ, ㅊ, ㅆ, ㅅ, ㄹ, ㄹ, ㄹ, ㄹ, ㄹ, ㅁ’ 등은 1.0% 미만의 아주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장애음과 겹자음이 음절 말음에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음운론적으로 일반적인 것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음절은 말음이 없는 것이고, 사용되더라도 공명음이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점은 전기와 마찬가지로 같다.

3.3. 미발표 작품

여기에서는 김소월의 생전에 발표되지 않았다가 사후에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진 미발표 작품에 대해 알아본다. 비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김소월 작품의 전체적인 특성을 밝히려면 함께 포함시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다루게 되었다. 미발표 작품은 총 44편으로 후기에 비해 조금 많았다. 총 음절 수는 6,580개이고, 한 편당 평균 음절 수는 150개다. 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 편당 평균 음절 수가 낮기 때문에, 미발표 작품들은 대부분 전기의 특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은 김소월의 미발표 작품들은 대부분 전기에 창작되었다는 것인데,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생각된다.

초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3-1과 같다.

표 13-1. 미발표 작품의 초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수	726	724	568	629	435	347	514	1480	390	120
비율(%)	11.0	11.0	8.6	9.6	6.6	5.3	7.8	22.5	5.9	1.8
	ㅋ	ㅌ	ㅍ	ㅎ	ㅊ	ㅆ	ㅅ	ㅆ	ㅆ	합계
수	21	41	89	296	103	41	11	27	18	6580
비율(%)	0.3	0.6	1.4	4.5	1.6	0.6	0.2	0.4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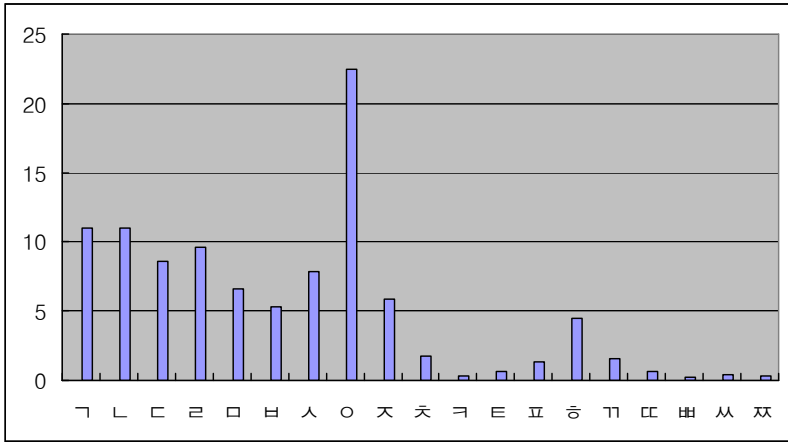


그림 7. 미발표 작품의 초성 비율

위 표와 그림을 보면 초성 총 6,580개 중 ‘ㅇ’의 수와 비율이 1,480개와 22.5%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비음인 ‘ㄴ(11.0%), ㅁ(6.6%)’, 유음인 ‘ㄹ(9.6%)’의 비율을 합치면 49.7%로 매우 높다. 여기에서 미발표작도 역시 김소월의 작품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전기나 후기처럼 음절 초성에 부드러운 공명음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초성은 ‘ㄱ, ㄴ’이었다. 그 다음은 9.6%의 비율을 보인 ‘ㄹ’이었다. 이점은 전기와 비슷한 특성이기 때문에 역시 미발표 작품이 전기에 발표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에 ‘ㅋ, ㆁ, ㅌ, ㅍ, ㅈ, ㅊ’은 1.0% 미만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경음과 격음의 사용 비율도 각각 3.1%, 4.1%로 전반적으로 낮다. 이러한 사실도 미발표 작품이 김소월의 것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3-2와 같다.

표 13-2. 미발표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ㅣ	ㄱ	ㅅ	ㅡ	ㅊ	ㅈ	ㅊ	ㅊ	ㅊ	ㅊ	ㅊ
수	889	294	243	972	589	1630	544	750	36	51	137
비율(%)	13.5	4.5	3.7	14.8	9.0	24.8	8.3	11.4	0.6	0.8	2.1
	ㅋ	ㅌ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합계
수	252	79	4	40	17	42	8	0	0	3	6580
비율(%)	3.8	1.2	0.1	0.6	0.3	0.6	0.1	0	0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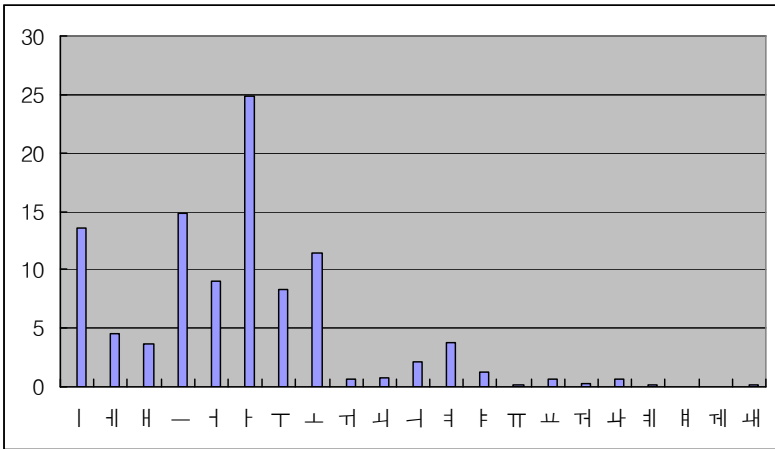


그림 8. 미발표 작품의 중성 비율

중성에서는 총 6,580개 중 ‘ㅈ’의 수와 비율이 1,630개와 24.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중성은 ‘ㅡ, ㅣ, ㅊ’ 순이었다. ‘ㅈ’는 그 비율이 9.0%로 그 다음 순위를 보였는데, 이 점은 전기의 특성과 같은 것이다. 이것도 역시 미발표 작품의 창작 시기를 전기로 추정할 수 있게 해 준다.

반면에 ‘ㅈ, ㅊ’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았고,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등이 1.0% 미만의 낮은 빈도를 보였다. 이것도 미발표 작품이 감소될 것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3-3과 같다.

표 13-3. 미발표 작품의 종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표
수	176	919	4	658	313	129	255	209	8	8	1	30	11
비율(%)	6.2	32.6	0.1	23.3	11.1	4.6	9.0	7.4	0.3	0.3	0.04	1.1	0.4
	ㅎ	ㄱ	ㅅ	ㅈ	ㅊ	ㄴ	ㄹ	ㅁ	ㅂ	ㅅ	ㅈ	ㅊ	합계
수	9	3	29	1	0	11	19	3	5	0	22	2823	
비율(%)	0.3	0.1	1.0	0.04	0	0.4	0.7	0.1	0.2	0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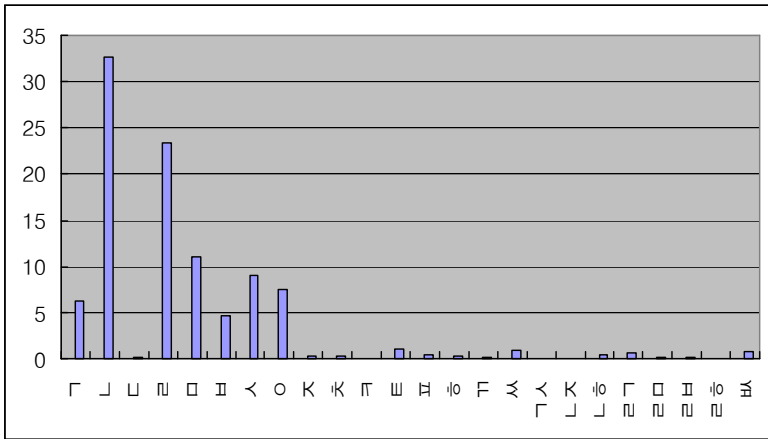


그림 9. 미발표 작품의 종성 비율

종성은 총 2,823개 사용되었는데, 총 음절 대비 비율은 42.9%였다. 이것은 전기나 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50% 이상의 시어를 종성이 없이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종성에서는 ‘ㄴ’의 수와 비율이 919개와 32.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ㄹ’, ‘ㅁ’ 순으로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역시 모든 공명음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ㅇ’까지 합쳐서 이들 공명음의 비율은 무려 74.4%다. 이것은 김소월 시의 음악적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발표 작품이 김소월의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반면 ‘ㅅ’, ‘ㅈ’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ㄷ’, ‘ㅈ’, ‘ㅊ’, ‘ㅋ’, ‘ㅌ’, ‘ㅎ’, ‘ㄱ’, ‘ㄴ’, ‘ㄹ’, ‘ㅁ’, ‘ㅂ’, ‘ㅅ’, ‘ㅈ’, ‘ㅊ’, ‘ㅋ’ 등은 1.0% 미만의 아주 낮은 비율을 보였다. 역시 전기나 후기의 경향과 마찬가지로였다.

4. 종합 분석

지금까지 전기, 후기, 미발표 순으로 김소월의 작품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 이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표 14-1. 전체 작품의 총 음절 수와 평균 음절 수

	전기							후기					미발표	합계 및 평균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소계	1926	1929	1931	1934	소계		
시(A)	14	21	33	20	10	89	187	16	3	2	19	40	44	271
음절(B)	1710	1811	4127	2723	1468	12445	24284	3740	976	317	4075	9108	6580	39972
B/A	122	86	125	136	147	140	130	234	325	159	215	228	150	148

김소월은 총 271편의 시를 창작했다. 발표 작품은 227편이고, 미발표 작품은 44편이다. 전기 187편, 후기 40편, 미발표 작품 44편이었기 때문에 전기에 좀더 활발하게 시 창작 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4-1을 보면 총 음절 수는 39,972개이고, 한 편당 평균 음절 수는 148개다. 전기는 130개, 후기는 228개, 미발표 작품은 150개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김소월은 전기보다 후기에 한 편의 시에 더 많은 시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하위 분석을 봐도 문학적으로 전기와 후기로 분류한 것이 적절했음을 알 수 있다. 음운적 특성에서도 전기와 후기가 명확히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미발표 작품은 그 창작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여기에서 분석한 평균 음절 수로 판단해 보면 거의 전기에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앞의 세부적인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초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4-2와 같다.

표 14-2. 전체 작품의 초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수	4498	4578	3465	3623	2561	1964	3448	8563	2518	729	
비율(%)	11.3	11.5	8.7	9.1	6.4	4.9	8.6	21.4	6.3	1.8	
	ㅋ	ㅌ	ㄲ	ㅎ	ㅊ	ㅌ	ㅍ	ㅆ	ㅈ	ㅊ	합계
수	145	277	396	1925	519	460	75	138	90	39972	
비율(%)	0.4	0.7	1.0	4.8	1.3	1.2	0.2	0.4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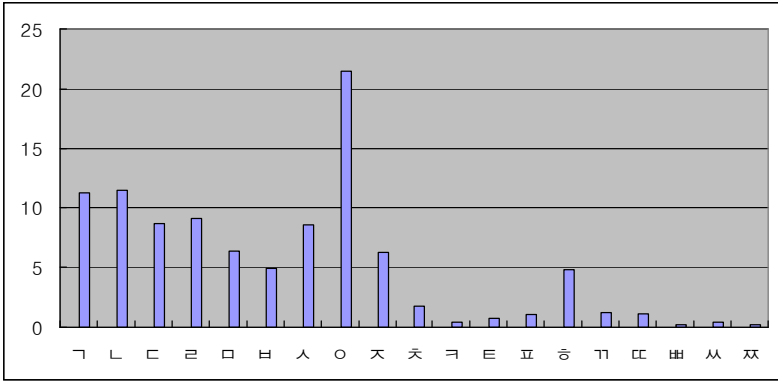


그림 10. 전체 작품의 초성 비율

위 표와 그림을 보면 초성 총 39,972개 중 ‘ㅇ’의 수와 비율이 8,563개와 21.4%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기, 후기, 미발표 작품에서도 항상 일정했다. 이 사실은 시어 중 초성이 없는 음절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여기에 비음인 ‘ㄴ(11.5%), ㅁ(6.4%)’, 유음인 ‘ㄹ(9.1%)’의 비율을 합치면 48.4%로 매우 높다. 이러한 특성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김소월이 음절 초성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부드러운 공명음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보통 음절 초성이 있는 것이 좋고, 초성에는 폐쇄음과 같은 강한 자음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지만, 김소월은 오히려 그것에 반대되는 성향의 시어를 선택한 것이다. 이점은 김소월의 모든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진 음절 초성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초성은 ‘ㄴ, ㄱ’ 순이었다. 특이한 것은 ‘ㄹ’의 비율이 9.1%로 네 번째 순위를 보였다는 것이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일반적으로 우리말은 음절 초성에 ‘ㄹ’이 오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오히려 김소월은 이 ‘ㄹ’을 전기에서 초성으로 대체로 많이 사용했다. 이것은 그 당시 두음법칙의 적용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기에서는 조금 그 경향이 낮아졌다.

반면에 ‘ㅋ, ㆁ, ㅌ, ㅍ, ㅎ’은 1.0% 미만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경음과 격음의 전체 사용 비율도 각각 3.3%, 3.9%로 전반적으로 낮다. 이것은 김소월이 시어의 초성 선택에서 공명음을 선호하고, 경음과 격음을 선호하지 않았음을 알게 해 주는 것이다.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4-3과 같다.

표 14-3. 전체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ㅣ	ㄱ	ㅅ	ㅡ	ㅜ	ㅓ	ㅗ	ㅛ	ㅝ	ㅞ	ㅟ
수	5697	1744	1594	5927	3872	5997	3164	4555	188	223	778
비율(%)	14.3	4.4	4.0	14.8	9.7	23.9	7.9	11.4	0.5	0.6	2.0
	ㅋ	ㆁ	ㅍ	ㅑ	ㅓ	ㅕ	ㅖ	ㅗ	ㅛ	ㅜ	ㅟ
수	1470	399	53	278	95	285	53	1	11	28	39972
비율(%)	3.7	1.0	0.1	0.7	0.2	0.7	0.1	0.003	0.03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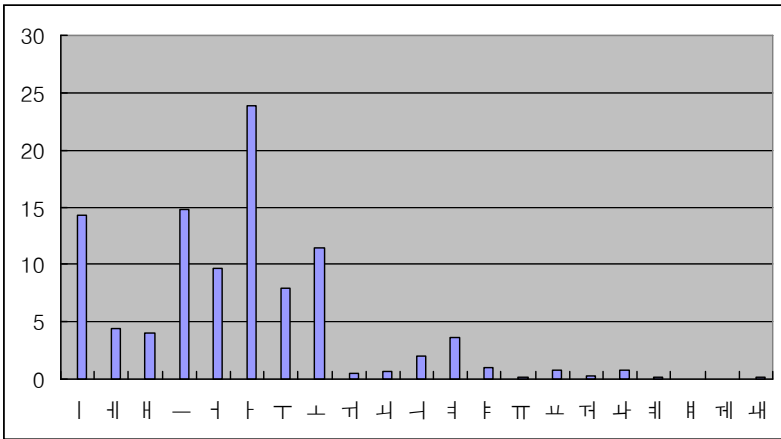


그림 11. 전체 작품의 중성 비율

중성에서는 총 39,972개 중 ‘ㅓ’의 수와 비율이 5,997개와 23.9%로 가장 높았다. 이것은 전기, 후기, 미발표 작품에서도 항상 일정했다. ‘ㅓ’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저모음으로 공명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저모음은 낭독을 할 때 입을 크게 벌려야 하므로 당연히 공명도가 높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음악적 특성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중성은 ‘ㅡ, ㅣ, ㅓ’ 순이었다. ‘ㅡ’는 우리 국어의 무표 모음이기 때문이고, ‘ㅣ’는 가장 안정적인 전설고모음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하겠다. ‘ㅓ’가 높은 것은 조금 특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ㅓ’가 오히려 ‘ㅓ, ㅣ’처럼 가장 안정적인 모음인데도 그와 상대되는 양성모음인 ‘ㅓ’가 더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이다. 이것은 김소월이 양성모음을 좀더 선호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ㅓ, ㅓ’가 ‘ㅓ, ㅓ’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ㅓ’가 ‘ㅓ’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이다.

반면에 ‘ㄱ, ㄴ, ㄷ, ㄹ, ㅈ, ㅊ, ㅋ, ㆁ’ 등은 1.0% 미만의 낮은 빈도를 보였다. 이중모음의 비율이 낮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김소월의 시에서 더욱 낮기 때문에, 김소월은 단순모음을 선호했다고 할 수 있다.

종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4-4와 같다.

표 14-4. 전체 작품의 종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표
수	1133	5445	19	3905	2118	967	1842	1241	16	14	1	48	15
비율(%)	6.6	31.9	0.1	22.9	12.4	5.7	10.8	7.3	0.1	0.1	0.01	0.3	0.1
	ㅎ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합계	
수	14	4	65	1	3	14	130	18	27	2	37	17079	
비율(%)	0.1	0.02	0.4	0.01	0.02	0.1	0.8	0.1	0.2	0.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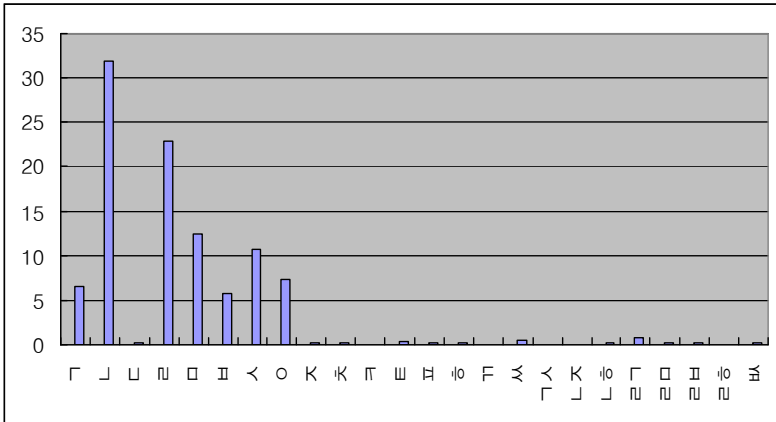


그림 12. 전체 작품의 종성 비율

종성은 총 17,079개 사용되었는데, 총 음절 대비 비율은 42.7%였다. 이것은 50% 이상(57.3%)의 시어를 종성이 없이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종성에서는 ‘ㄴ’의 수와 비율이 5445개와 31.9%로 가장 높았다. 이것은 전기, 후기, 미발표 작품에서도 항상 일정했다. 그 다음은 ‘ㄹ, ㅁ, ㅅ’ 순으로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ㄴ, ㄹ, ㅁ’은 모두 공명음인데 높은 비율을 보였다. ‘ㅇ’까지 합쳐서 이들 공명음의 비율은 무려 74.5%이다. 이러한 점은 김소월 시의 음악적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 대부분 종성 없는 시어를 선택했으며, 종성 중에서도 가장 부드러운 종성인 공명음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초성에서도 공명음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때 김소월은 시어에서 부드러운 자음을 선호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ㄷ, ㅈ, ㅊ, ㅋ, ㅌ, ㅍ, ㅎ,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ㅜ, ㅡ, ㅞ, ㅟ, ㅠ’은 1.0% 미만의 아주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장애음과 겹자음이 음절 말음에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은 언어학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음절은 말음이 없는 것이고, 사용되더라도 공명음이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점은 초성과 대비되는 특징이다. 여기에서 김소월은 초성에서 언어의 일반적인 경향과는 반대로 자음을 선택했고, 중성에서 일반적인 경향과 같은 자음을 선택한 시인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김소월 시의 언어적 특성을 음절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하여 어떠한 소리들이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를 통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김소월의 시 전체를 전기, 후기, 미발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언어적 특성으로도 문학계에서 분류한 전기와 후기의 구분이 적절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김소월은 시어의 선택에서 초성과 중성이 없는 음절과 [+공명성] 자질을 가진 소리를 선호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초성이 없는 경우가 21.4%, 중성이 없는 경우가 57.3%였기 때문이다. 또한 초성에서 공명음이 쓰인 비율이 48.4%, 중성에서 ‘ㄱ’의 비율이 23.9%, 종성에서 공명음이 쓰인 비율이 74.5%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단순한 통계적 특성으로 어느 작가의 작품 경향을 완벽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특히 한 작가의 문체를 충실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가 드러내고자 했던 내용의 측면과 그것을 담은 형식의 측면이 일치되는 지점을 찾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그러한 완성을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었다고 생각한다. 김소월 시의 연구를 가장 작은 단위인 소리, 특히 철자의 층위에서 분석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가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거의 처음 시도된 연구라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다른 시인들의 자료 및 일반 언어자료와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시인들의 작품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분석해 보려고 한다. 다만, 일반 언어자료의 비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아직까지 그 누구

도 일반 언어자료에서 어떤 소리가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를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개인 연구자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이며, 국가 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번 연구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한국 현대시의 언어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혀보려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 과정 속에서 문학적 성과들을 확인하는 작업도 함께 도모하려고 한다.

참고문헌

- 강용택. (2004). 조기천과 김소월 시문체를 통해 본 시인의 개성적 차이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2, 10-15.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 구인모. (2002). 김소월 시로 본 근대시 율격이론의 문제. *한국학보*, 28(1), 163-183. 서울: 일지사.
- 김종욱. (2005). *정본 소월전집(상, 하)*. 서울: 명상.
- 림금산. (1987). 김소월 시의 운률특성-반복률. *중국조선어문*, 1, 59-61.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 오하근. (1994). 김소월 시의 어구 생략. *한국언어문학*, 33, 251-265. 한국언어학회.
- 전정구. (1990). *김소월시의 언어시학적 특성 연구-개작과정을 중심으로*.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조성문

133-791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 (02)2220-0738
이메일: mooni67@hanyang.ac.kr

Received: 20 December, 2007

Revised: 15 January, 2008

Accepted: 20 February, 2008